

[특별 기고]

## 『長恨夢』의 변안 형태에 대한 재검토

나카가와 아끼오 (서울보건대학)

<차례>

- I. 머리말
- II. 腹案과 『終篇金色夜叉』의 관련성
  - 2.1. 聞書
  - 2.2. 覺書
  - 2.3. 『終篇金色夜叉』에 있어서의 覺書[六]의 수용 형태
- III. 『長恨夢』의 변안 형태에 대한 재검토
  - 3.1. 변안 형태의 전체상
  - 3.2. 상권의 변안 형태
  - 3.3. 중권의 변안 형태
  - 3.4. 하권의 변안 형태
- IV. 覺書[六]과 『長恨夢』의 결말부분의 관련성
- V. 맺음말

### I. 머리말

『長恨夢』은 20세기 초 한국을 대표하는 변안 소설이다. 작가인 조중환(趙重桓)은 『長恨夢과 雙玉淚』에서 다음과 같이 변안의 동기를 밝혔다.<sup>1)</sup>

---

1) 『三千里』 9월호, 1935년, 236쪽.

“생각하면 벌써 옛날 일이다. 내가 明治 文豪 尾崎紅葉의 『金色夜叉』를 『長恨夢』이란 이름으로 번안하여낸 것이 그것이 己未前이었으니, 벌써 20餘年の 歲月이 그 사이를 흘렀다. … 그 뒤에 나는 생각하였다. 조선 청년 남녀의 精神的 糧食을 주기 위하여 이 小説을 ‘조선것’으로 옮겨놓아야 할 날이 오리라고 …”

이상과 같은 동기 아래, 다음 세 가지의 절차를 걸쳐 『長恨夢』이 번안되었다.

1. 事件에 나오는 背景 等を 純朝鮮 냄새 나게 할 것.
2. 人物의 이름도 朝鮮 사람 이름으로 改作할 것.
3. 플롯을 過히 傷하지 않을 程度로 文彩와 會話を 自由롭게 할 것.

당시 『長恨夢』이 발표된 상황과 그것이 얼마나 많은 호평을 받았는가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sup>2)</sup>

“<長恨夢>은 一九一三年 每日申報에 連載하여 그 당시 독자에게서 絶讚을 받고 一九一五年에 다시 그 續篇을 同紙에 실었던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日本作家 尾崎紅葉(一八六七~一九〇三)의 소설 <金色夜叉>를 翻案한 것으로 (後半에서는 作家의 創意를 注入하여 오히려 原作보다도 내용의 幅을 넓혔음), 愛情物을 중심한 新聞小説의 한 典型을 이루어 놓았다. 더구나 이 작품의 주인공인 『이수일(李守一)』과 『심순애(沈順愛)』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못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근래에도 이 작품은 자주 演劇의 臺本 및 映畫化까지 되어 상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長恨夢』의 원작 중의 하나인 『金色夜叉』는 1897년부터 1903년까지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에 연재되었다가 1903년에 작자인 尾崎紅葉(오사키 코오요)가 사망함에 따라 중단되었다. 그 후 제자인 小栗

---

2) 『韓國新小説全集』 卷9, 1968년. 乙酉文化社. 473쪽.

風葉(오구리 후우요)는 尾崎紅葉가 고안한 腹案을 참고로 해서 『終篇金色夜叉』를 작성해 1909년에 완결하였다. 『長恨夢』이 이 『金色夜叉』와 『終篇金色夜叉』를 원작으로 번안되었다는 비교문학적인 연구는 이재선(1968) 등에 의하여 논의되었다.<sup>3)</sup> 하지만 『長恨夢』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교 연구는 주로 尾崎紅葉의 『金色夜叉』와의 관련성에만 초점을 둔 것이었고, 『終篇金色夜叉』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소홀히 다루어 왔다.<sup>4)</sup> 그래서 『長恨夢』에 『終篇金色夜叉』가 어느 정도, 어떤 형식으로 수용되었던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것은 『長恨夢』의 후반부에서 결말에 이르는 부분이 번안 작가의 창작인지 원작을 수용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長恨夢』을 『金色夜叉』 및 『終篇金色夜叉』와 대조시킴으로서 이들 두 권의 일본 소설이 어느 정도, 어떤 형식으로 『長恨夢』에 수용되었는가를 재검토하기로 한다. 그 결과 『長恨夢』 전체에 걸친 번안 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후반부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長恨夢』에 대한 본래의 평가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尾崎紅葉가 고안한 『金色夜叉』의 腹案을 『終篇金色夜叉』 및 『長恨夢』과 대조시킴으로서 腹案이 어느 정도 『長恨夢』에 영향을 미쳤던가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논문은 또 『長恨夢』의 주제 형상에 번안 작업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원작과 다른 주제가 형성되었던가를 아울러 밝히기로 한다.

본 논문의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3) 李在銑, 『翻案小説考-『金色夜叉』의 受容과 變容의 경우-』, 『韓國開化期小説研究』, 1972년.

潮閣. 311~336쪽.

4) 최형미(1992), 송명옥(1998), 최지순(1999)은 모두 『長恨夢』을 『金色夜叉』와 대비해서 연구 작업을 했다. 또 腹案과의 관계는 나카가와(1998, 201~202쪽)가 腹案 내용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연구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 「長恨夢」: 趙重桓(再版), 上卷, 匯東書館, 1919.  
趙重桓(三版), 中卷, 朝鮮圖書株式會社, 1921.  
趙重桓(六版), 下卷, 朝鮮圖書株式會社, 1923.
- 「金色夜叉終篇金色夜叉」: 尾崎紅葉·小栗風葉, 「婦人俱樂部四月號附錄」, 大日本雄辯會議談會, 1935.

## II. 腹案과 「終篇金色夜叉」의 관련성

尾崎紅葉는 「金」의 腹案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언급하기도 했고 직접 쓰기도 했다. 전자는 聞書이고 후자는 覺書(memorandum)이라고 불린다.<sup>5)</sup>

### 2.1. 聞書

聞書는 尾崎紅葉가 작품의 구성에 대해 직접 언급한 기록이며 원작가의 구성이 달라짐에 따라 여러 번 변경되었다.<sup>6)</sup> 그 중에서 「金」의 결말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서는 제자인 花房柳外(하나후사 류가이)와 泉鏡花(이즈미 교카)가 직접 들은 聞書가 유명하다.<sup>7)</sup>

花房은 1902년 2월에 일본 宮戶座에서 상연된 신파극 「金色夜叉」의 각색을 맡았을 때 尾崎紅葉로부터 「金」의 결말에 대한 구성안을 들었고 그 내용을 1904년에 출간된 「新小説」 3월호에서 「故紅葉山人と演劇と(고 코오요산인과 연극과)」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한편 泉鏡花의 聞書는 1927년에 「明治大正文學全集」 第五卷의 「金色夜叉小解」라는

---

5)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金色夜叉」를 「金」으로, 「終篇金色夜叉」를 「終篇」으로, 「脚本金色夜叉」를 「脚本」으로, 「長恨夢」을 「長」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6) 勝本清一郎, 「金色夜叉腹案覚書解題」, 「尾崎紅葉全集」 第六卷, 中央公論社, 1941년.

7) 「尾崎紅葉集」, 「日本近代文學大系 5」, 1989년, 角川書店, 529·531쪽.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다음은 그들이 발표한 두 가지 聞書의 내용이다.

<花房柳外> “『金色夜叉』は今九十回程を以て終りとする心組なり、そは貫一が既に藝妓愛子と其の情夫とを救ひて我が家に伴ひ歸りて二人を養ひ置けるに、愛子が賣女の類に似ず、心立て優しきものなりしかば、貫一さては婦人とて宮のやうなるものゝみにあらざりけりと、婦人を厭ふの念漸く薄らぎて、情の性貫一が心中に復活し來れり、偶ま宮が嫁せる富山唯繼の家庭は大なる紊亂を惹き起せり、唯繼は藝妓愛子を獲んとして失敗し、加乃宮は誓つて再び兒を生まずといひし程なれば夫婦間の情合ひは次第に冷却し居れば、纔かに金の力もて一人の雛妓を落籍させ、小間使の名義にて我が家に納れたり、此の結果として家庭は益す亂れに亂れ、宮は一面には貫一の心解けざる失望やら、いろいろの原因より竟(つ)ひに取り逆上(のぼ)せて心狂はしうなり行きければ、唯繼は座敷牢をしつらへてこれを閉ち籠(こ)め置けり、宮の父母始めて娘を欺かる家に嫁せしめたるを悔いぬ、貫一これを聞いて哀れに思ひ、宮を富山の宅より引き取りて我が家に伴ひ歸らんとす、車に乗せ來れる途中、彼の滿枝は其の養父のやうなる、夫のやうなる高利貸某の死せるが爲めに、これを葬り畢りて歸れる途なるに行き合せたり、これを全編の終末とする心にて、主として上流社會の紊亂せる家庭を描破せんとするが我が心組みなるが、これを寫すの難きに苦心中なり、云々(うんぬん)”

(『金色夜叉』는 이번 90회 정도를 끝으로 매듭지을 생각이다. 그 내용은 대체 다음과 같다. Kang이치가 기생인 아이꼬와 그녀의 애인을 구하고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사는 가운데서 아이꼬가 친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함을 보고 여자는 모두 미야같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후부터 여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종종 없어지면서 본래의 Kang이치로 뒤돌아가기 시작한다. 한편 미야가 시집 간 토미야마 타다쯔구의 가정은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타다쯔구는 기생 아이꼬를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한 계획이 수포로 되고, 미야는 맹세코 다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악해짐에 따라 부부 사이는 종종 차가워진다. 그래서 토미야마는 재력으로 처녀 기생을 기적에서 빼내고 가정부의 신분으로 집으로 데려오려고 한다. 그 결과 가정 환경은 최악으로 된다. 미야는 한편으로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Kang이치에 절망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쌓이면서 정신이 나가기 시작한다. 토미야마는 방안에 미야를 가두어 두고 나서 비로소 미야의 부모는 혼

인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 이 소식을 듣고 가엽게 여긴 칸이치는 미야를 토미야마의 집에서 구해 주고 집으로 데려 오려고 인력거에 미야를 태워 가는 도중에 미쓰에가 양부이기도 했고 남편이기도 했던 고리대금 업자를 화장하고 그 유골을 안고 있는 모습을 유연히 본다. 이 장면을 끝으로 전편을 완결하려고 했다. 주로 타락하고 혼란에 빠진 상류사회의 가정을 묘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泉鏡花〉“先生に私が聞いたのでは、宮は發狂する、其の發作の亢進は、貫一に寄する手紙の、次第にしどろなるとゝもに著しい。富山の彼の女を棄てる。貫一が胸を抱いて引取るのである。而して、狂へる宮を、俤に乗せ、彼は徒歩して輻(や)に引添ひ、病院に送り行く、薄暮、富士見町の臺を下りて牛込見附へ出やうとする、土手の松竝木の向うから、死せる赤檜の柩に從つて、喪服して悄然として俤にも乗らず滿枝の來るのと、ふと出逢ふ。折から、舊見附を斜に衝(つ)と出ずる、鐵鞭を手にしたる荒尾讓介が立停まるのと、三個相見る處で團圓。…勿論承つたのは早く唯一度である。大作家の感興が觸るゝ銀線の音には自在の變化がある。その後、意圖の、何うお動きに成ったかは、一指、片鱗と雖(いえど)も、われら弟子輩の窺ひ及ぶべき處ではないのである。”

(선생님에게 내가 들은 내용은 마음과 같다. 미야는 발광한다. 그 발작이 심해지는 모양은 미야가 칸이치에 보낸 편지 내용이 종종 앞뒤가 맞지 않고 횡설수설해지는 상황으로 잘 나타난다. 토미야마는 드디어 그러한 미야를 버리고, 칸이치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미야의 신변을 맞는다. 이렇게 해서 정신나간 미야를 인력거에 태우면서 칸이치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해질녘 富士見町の 고개를 넘어 牛込見附로 나가는 소나무 가로수의 제방 쪽에서 죽은 아카가시의 관 뒤에 상복을 입고 맥없는 모습으로 걸어오는 미쓰에와 유연히 만난다. 마침 舊見附 방면에서 철로 된 지휘봉을 들은 아라오조스계가 갑자기 찾아와 세 명이 만나는 장면으로 작품은 끝난다. … 물론 이 복안에 대해 한 번밖에 들어 본 적이 없다. 대작가는 음악의 대가가 자음에 잘 맞게 음을 자유로이 내듯 천차만별한 변화를 작품에 줄 수 있다. 그 후 선생님이 구성을 어떻게 바꾸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해도 우리같은 모자란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聞書를 비교하면 공통된 「金」의 결말 부분의 윤곽이 드러난다. 다만 花房柳外가 각본을 맡아서 1902년에 상연된 신파극 「金色夜叉」에서 이 聞書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던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1905년에 小栗風葉가 발표한 신파극 「金色夜叉」의 각본인 「脚本」의 결말 부분도 위의 聞書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일찍부터 「金」의 결말 부분이 세상에 알려져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聞書を 다음에 제시한 覺書와 대조하면 더 구체적인 「金」의 결말 부분이 드러난다.

## 2.2 覺書

小栗風葉는 尾崎紅葉가 고안한 覺書を 참고로 해서 1905년에 「脚本」을, 1909년에 「終篇」을 썼다. 「脚本」은 신파극 「金色夜叉」의 대본이었고 그것을 산문화한 소설 「終篇」은 1909년에 新潮社에서 출판되었다. 하지만 「終篇」은 「金」에 비해 내용 및 기법 면에서 미숙하다는 혹평을 받았고, 당시 유행하기 시작했던 자연주의적 문풍에 미루어 「金」과 더불어 시대의 흐름 속에 사라지고 말았다. 다음은 「終篇」의 머리말에 제시된 小栗風葉의 회고 기록이다.<sup>8)</sup>

“一昨年の冬、「後の金色夜叉」なる稿本を齎らして、其出版を新潮社に謀れる人あり。新潮社は思ふ所ありて、直ちに稿本を買收し、餘に示して、別に新に「終篇金色夜叉」を起稿せん事を望む。余は徒らに狗尾を續ぐの嗤を恐れて一度びは辭せしも、其稿本を閲讀するに及びて、文字の蕪雜、作意の不備は言ふまでもあらぬが、然かも其脚色の主として來れる所、先年余が「脚本金色夜叉」に發表せし、故紅葉山人の腹案覺書に依れるものなるを發見せり。元來此覺書なるものは、故人の舊門弟たる北島某氏の所藏なりしを、先年余が伊井蓉峰氏の依頼に依り、「金色夜叉」の結末の場を劇に書卸し、際、就いて借覽せしものにて、仍故人の生前直接に語られし所なりとて、

8) 小栗風葉, 「『終篇金色夜叉』の執筆に就いて」, 「金色夜叉終篇金色夜叉」, 1935년, 大日本雄辯會議談會, 315~316쪽.

新派劇의 作者なる 岩崎蕁花氏가 某誌(新小説か、或は小天地なりしか今は記憶せず)に 掲載せし 「金色夜叉」 結末의 腹案談なる 記事と 参照して、十分其 信據すべき를 認けるものなり。…

恁くて余は故人의 腹案覺書に 依て 大體의 脚色를 立案し、それより自家의 餘暇를 偷みて 「終篇金色夜叉」의 執筆に 努むるありしが、文章의 圓熟、字句의 洗練를 以て、殆ど無比의 評ある 故人의 筆致를 模する의 困難は、實に 喩ふべくも非ず。”

(제작년 겨울 「그 후의 金色夜叉」라는 高本을 쓰고 新潮社에서 출판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다. 新潮社 쪽은 무슨 뜻을 갖고 그 高本을 매수하여 나에게 보여주면서 이 高本과 별도로 「終篇金色夜叉」의 기고를 요청했다. 나는 쓸데없이 남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비판을 받기가 싫어 일단 거절했다. 하지만 그 高本을 읽어보니 문장이 난잡하고 구성이 미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각색은 주로 작년에 내가 「脚本金色夜叉」에 발표하고 고(故) 紅葉山人이 고안하신 복안 메모에 기인한 것이었다. 본래 이 복안 메모는 고인(故人)의 제자였던 키타자마 모 씨가 소장한 것이었는데 작년에 내가 이미 요우호우 씨의 부탁을 받고 「金色夜叉」의 결말 부분을 신파극 용으로 다시 작성했을 때 빌려 본 것이며 고인이 생전에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다. 신파극 작가인 이와사키 송코 씨가 모 잡지(新小説이었던지 혹은 小天地이었던지 지금은 기억이 분명치 않다)에 게재된 「金色夜叉」의 결말에 관한 복안 이야기를 기사로 한 것과 비교할 때 충분히 그 신빙성이 확실한 것이다. …

이렇게 해서 나는 고인의 腹案覺書를 참고로 각색안을 대체로 마련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終篇金色夜叉」의 집필 작업을 나름대로 하게 되었는데, 문장의 원숙함과 자구의 세련함에 이르기까지 당대 최고의 작가로 꼽은 고인의 필치를 따라갈 바가 아니다.)

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小栗風葉가 참고로 한 腹案覺書는 尾崎紅葉가 직접 쓴 것이고 그 작성 시기는 1899년 이전이라고 추측되고 있다.<sup>9)</sup> 小栗風葉가 「脚本」과 「終篇」에서 제시한 覺書는 尾崎紅葉가 고안한 복안의 일 부분이고, 그 전체 내용은 勝本

9) 勝本清一郎, 같은 책, 547~618쪽.

清一郎(카츠모토 세이이치로 1941)에 의하여 「金色夜叉腹案覺書腹案覺書」로 정리되었다.10) 그 覺書 중에서 「金」의 결말 부분과 관련된 것은 다음 覺書[六]이다.11)

覺書[六]

(14) 富山の家庭(宮の憂悶。情神錯難の端を發して、夫に離縁を申込む。唯繼の冷笑。)

○ 富山は愛子に傷けられてより<赤襟を擁して浪蕩す>二週間も家に歸らず。隨(註、墮の誤記)行新聞に出づ。

▲ 母親來りて、病中の宮を責むる事。

彼の今日の出世を言立て、其恩を感ぜざるは人非人なりと、口きたなく罵る。

○ 富山、一日ふらりと歸來る。留守中の事を言ふ。彼曰く、家に在るの不快なる故、かゝ(註、る一字缺か)事も爲る也。善く我に事へなば、今後改悛せん。汝の意如何にと詰られて、病のゆゑに堪へずと答ふ。

○ 然らばとて、入院を勸む。跡に<十七になる半玉也>妾を納れんが爲也。宮は悔を及ばずして、今は貫一が滿枝と歡するを疑ひて、全く絶望の底に沈み果てながら、又貫一の變れる姿を見て、眷々の情に堪へざる者有

10) 勝本清一郎, 같은 책, 547~553쪽.

11) 「金」과 「脚本」과 「終篇」과 「長」의 주요 등장 인물의 대조는 다음과 같다. 인간 관계를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金」의 등장인물에 해당하는 「長」의 등장인물을 ( )에 제시했다.

「金」 · 「脚本」 · 「終篇」		「長」
間貫一(하자마 칸이치)	→	李守一(이수일)
鴨澤宮(카모자와 미야)	→	沈順愛(심순애)
富山唯繼(토미야마 타다쓰구)	→	金重培(김중배)
荒尾讓介(아라오 죠스게)	→	白樂觀(백락관)
鴨澤隆三(카모자와 류조)	→	沈澤(심택)
赤櫻滿枝(아카가시 미쓰에)	→	崔萬慶(최만경)
赤櫻権三郎(아카가시 공자부로)	→	쨌레만
鰐淵直道(와니부찌 타다미치)	→	金道植(김도식)
狹山元輔(사야마 모토스케)	→	崔元甫(최원보)
愛子(아이코)	→	玉香(옥향)

る也。此身を如何に處すべきかを、思ひ煩ひて休まず。

(15) 間の家庭(狹山夫婦の同居。兩人の惻誠なる主事(カシヅキ)。)

(16) 荒尾と直道に向ひて改悛の告白。

(17) 鳴澤一家の悲嘆。(宮の發狂)。貫一に逢はんとて常に驅出さんとす。

○ 憂鬱病の爲に入院させらる々事。

(18) 貫一人々に説れて、始て宮を赦すの念を發する胸中の模様。

(19) 宮を車に載せ歸る途に、滿枝の赤櫻の骨を抱きて、焼場より歸るに逢ふ。

(14) 토미야마(=김중배)의 가정. 미야(=심순애)의 우민. 정신착란을 계기로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한다. 남편은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

○ 토미야마는 아이꼬로부터 모독을 받고 나서부터 <어린 기생을 늘 데리고 방탕에 빠진다> 이주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토미야마의 부도덕적 행위가 타행신문에 나온다.

▲ 모친이 찾아와 병으로 누워 있던 미야를 나무란다. {토미야마의 출세를 이유로 그 은혜를 못 느끼는 것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고 야단 친다.}

○ 어느 날 토미야마가 갑자기 집에 돌아온다. 그 동안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야에게 물어본다. 그는 집에 있으면 불쾌하므로 방탕생활같은 짓을 한다고 말한다. 만약 미야가 앞으로 처 노릇을 잘한다면 회개하겠다고 말하고 미야에게 대답을 요청한다. 그러면 미야는 질병 때문에 그것은 못한다고 말한다.

○ <17살 되는 한교쿠라는 기생>첩을 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미야를 입원시키려고 한다.

미야는 캥이치가 미쯔에(=최만경)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거절하는게 아닌가하고 절망을 느끼면서 앞으로 취해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타락한 캥이치의 모습에 동정심을 느낀다.

(15) 캥이치의 가정. {캥이치가 생명을 구해준 사야마(=최원보) 부부와 같이 산다. 사야마부부는 캥이치를 모시고 산다.}

(16) 캥이치는 아라오(=백낙관)와 나오미치(=김도식)에게 잘못을 회개한다.

(17) 시노자키 가의 비탄. (미야의 발광). 미야는 캥이치를 만나려고 뛰어나가려고만 한다.

○ 미야는 우울증 때문에 입원하게 된다.

(18) 여러 사람으로부터 설득을 받아 미야를 용서하기로 결심한 칸이치의 마음을 묘사함.

(19) 칸이치가 병원에서 미야를 인력거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도중에 아카기시의 유골을 꺼 안으면서 화장터에서 돌아가는 미쓰에를 만난다.)

覺書[六]과 聞書를 비교하면, 내용면에서 공통적이며 聞書가 覺書[六]에서 구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실과 1904년에 聞書가 발표되었고, 覺書를 참고로 작성된 신파극 ‘金色夜叉’가 1905년에 공연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金』의 결말 부분은 늦어도 『長』이 번안되기 전 1905년쯤에 당시 일본과 조선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음이 쉽게 추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金』의 결말 부분이 覺書[六]에서 구체화되었고, 후일 小栗風葉가 그 覺書[六]을 참고로 해서 『脚本』 및 『終篇』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覺書[六]을 앞으로 『終篇』의 腹案으로 삼고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 2.3. 『終篇金色夜叉』에 있어서의 覺書[六]의 수용 형태

覺書[六]의 내용이 『終篇』에 수용된 부분은 『終篇』 1장, 2장의 (一)·(二)·(三), 4장의 (三), 6장의 (一)·(二), 7장의 (二), 9장의 (四), 10장의 (一)·(二)이다.<sup>12)</sup> 다음 <도표 1>은 覺書[六]과 『終篇』을 대비한 결과이다.

<도표 1>이 가리키듯 覺書[六]은 자르고 조립하는 방식으로 『終篇』에 수용되어 있고, 그 비율은 『終篇』(12장, 23절)의 절반(47.8%)을 차지한다. 하지만 覺書에 없는 『終篇』의 줄거리가 小栗風葉가 창작한 것인지, 그가 尾崎紅葉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참고로 한 것인지

12) 『終篇金色夜叉』에는 원래 “...장의 (·)”을 “第...章”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장의 (·)”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장의 (·)”로 표시했다.

는 분명하지 않아 후일의 연구에 맡겨야 한다.

한편 覺書[六]은 (14)와 (17)의 일부는 생략되거나 변경되었다. 覺書 [六]의 (14)의 “토미야마는 아이꼬로부터 모독을 받고 나서부터 <어린 기생을 데리고 방탕에 빠져 이 주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에 해당되는 내용은 「終篇」을 비롯해 「金」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또 (17)의 “미야는 칸이치를 만나려고 뛰어 나가려고만 한다.”에 유사한 장면이 「終篇」 2장의 (三)에 있을 뿐 「金」에서 찾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覺書[六]의 (14)의 “<17살 되는 한교쿠라는 기생>침을 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미야를 입원시키려고 한다.”라는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終篇」 4장의 (三)에 나오지만 사건 배경이 변경되었다. 그것에 해당되는 장면은 명백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고리대금을 그만두라고 칸이치를 설득하기 위해 아라오(=백낙관)와 사야마(=최원보)와 나오미치(김도식) 세 명이 모인 곳에서 소문 형식으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此四五日前の丹子からの便りにも、富山が先達で落籍させた例のぼたんとか云ふ女と一緒に、三河屋から自分達が聘ばれた時に、何かの話の次手に、ぼたんとか云ふ女が、旦那は何有に、口ばかり奥さんを貶して居ても、其實戀女房だから何うだとか言出して、其證據には貴方の離縁も久しいものだ、とつたのださうで御座います。すると富山が、猫の子でも棄てるやうに然う容易く離縁が出来るものか。

然し離縁はすぐ出来なくても、近々愈よ病院へ入れる事に爲たから、然うしたら窮屈でもぼたんに邸へ来て貰はなけりや成らない、とまあお世辭も御座いましたでせうが、眞面目に然う申したのを、…」

(「…이 사요일 전에 탄고에서 들은 소문에 토미야마가 지난번에 몸값을 내 준 보탕이라는 기생과 함께 미카와야가 자네들을 불렀을 때 뭔가 이야기가 나온 길에 보탕이가 남은 말로서만 사모님을 싫어한다고 하셔도 언젠가는 좋아해 결혼한 아내가 역시 사랑스럽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야. 그 증거로님은 아직까지 이혼을 주저하고 계시다고 놀려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토미야마는 고양이 새끼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빨리 이혼하지 못해도 가까운 시일에 병원으로 입원시키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 답답하더라도 보탕이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

으면 안 되게 될 것이라고, 물론 알랑거린다는 뜻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말했다는데,…」) <「終篇」 4장의 (三)>

이상과 같은 대조 결과는 小栗風葉가 「終篇」의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覺書[六]의 상당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수용해서 「終篇」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sup>13)</sup>

다음은 「金」과 「終篇」을 「長」과 대조함으로써 「長」의 번안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3) 특이한 것은 覺書[六]의 (14)의 일부와 (17)에 해당되는 내용이 「金」과 「終篇」에 중복되어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金」 신속편 3장과 「終篇」 2장의 (一)인데, 전자는 覺書의 내용이 편지 형식으로 요약되어 있다. 거기에는 미야가 캄이치에게 회개와 용서를 청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미야가 남편 토미야마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남편이 기생 놀이를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나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것,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는 것, 캄이치를 사모하는 마음이 고조됨에 따라 배신한 죄의식이 심해져 드디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미야의 편지가 제시되었다. 「終篇」 2장의 (一)에도 「金」 신속편 3장과 동일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서 小栗風葉가 「金」의 속편으로서 「終篇」을 작성하기로 했던 고심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도표 1> 『終篇金色夜叉』에 있어서의 覺書[六]의 수용 형태

<p>칸이치의 가정. {칸이치가 생명을 구해 준 사야마부부와 같이 산다. 사야마부부가 칸이치를 모시고 산다.}</p>	<p>覺書와 동일함. 『金』 신속면 2장에도 유사한 상황 묘사는 있는데, 내용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p>
<p>토미야마의 가정, 미야의 우민.</p>	<p>미야가 칸이치에게 보낸 편지에 죄의식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것, 토미야마의</p>
<p>미야는 칸이치가 미쓰에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 의 마음을 거절하는게 아 닌가하고 절망을 느끼면 절서 앞으로 취해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p>	<p>기사가 신문에 나오는 데 집안이 재미없기에 기생 놀이를 한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음. (다만 시어머니가 찾아온 내용은 覺書에 없다.)</p>
<p>토미야마는 아이꼬로부터 모독을 받고 나서부터 어린 기생을 데리고 방탕에 빠진다.</p>	<p>覺書와 동일하다. (토미야마가 아이꼬로부터 모독을 받고 어린 기생을 데리고 방탕에 빠진다는 내용은 생략되었음.)</p>
<p>토미야마의 부도덕적 행위가 隨行新聞에 나온다.</p>	
<p>어느 날 토미야마가 갑자기 집에 돌아온다. 그동안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야에게 물어본다. 그가 말하기는 집에 있으면 불쾌하므로 방탕생활을 한다고 말한다. 만약 미야가 앞으로 처 노릇을 잘 한다면 회개하겠다고 말한다.</p>	<p>覺書와 거의 동일함. (토미야마가 갑자기 집에 돌아와 집안일에 대해 물어봤다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음.)</p>
<p>정신착란을 계기로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한다. 남편은 냉정한 태도를 취한다.</p>	
<p>칸이치가 자기의 마음을 거절하는 태도에 절망을 느끼면서도 타락한 칸이치에게 동정심을 갖는다. 모친이 찾아와 병으로 누워 있던 미야를 나무란다. {토미야마의 출세를 이유로 그 은혜를 못 느끼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야단 친다.}</p>	<p>覺書와 동일함. (모친이 미야를 나무란 이유는 覺書로와 달리 토미야마의 처서 지켜야 할 “도리” 때문이다.)</p>

	覺書에 없음
	"
	"
강이치가 아라오와 나오 미치에게 잘못을 회개한다.	覺書와 동일함. (강이치는 고리대금을 그만둘 것을 결심하나 미야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한다. 또 토미야마가 미야를 입원시키고 기생을 들어오게 한다는 소문을 강이치가 들었다는 형식으로 묘사되어 있음.)
<17살 되는 한교쿠라는 기생>침을 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미야를 입원시키려고 한다.	覺書와 동일함
	覺書와 동일함(宮의 부모의 회개)
카모자와 가의 비찬(미야의 발광), 미야는 우울증 때문에 입원하게 된다.	覺書에 없음
	覺書에 없음(미야의 부친이 아라오에게 미야와 강이치의 만남 성사에 협조를 부탁하는 장면은 覺書에 없음.)
	覺書에 없음
	"
	"
	"
여러 사람으로부터 설득을 받아 미야를 용서하기로 결심한 강이치의 마음을 묘사함	覺書와 동일함. (강이치와 아라오의 사이에서 설득이 이루어졌다.)
	覺書에 없음(강이치와 미야가 병원에서 화합)
강이치가 병원에서 미야를 인력거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도중에 아카가시의 유골을 꺼안으면서 화장터에서 돌아가는 미쯔에를 만난다.	覺書와 동일함.
	覺書에 없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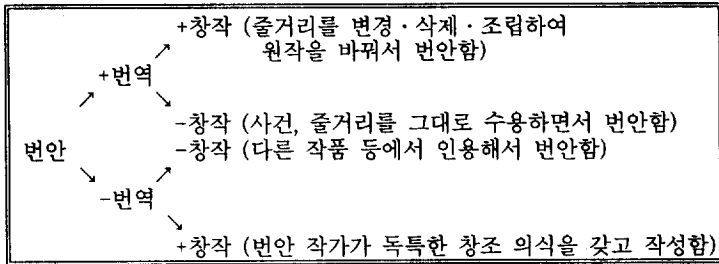
### Ⅲ. 「長恨夢」의 변안 형태에 대한 재확인

#### 3.1. 변안 형태의 전체상

「長」은 상권·중권·하권의 3권·3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4)</sup> 한편 「金」은 전편·중편·후편·속편·속속편·신속편의 6편·39장으로, 「終篇」은 1편·12장(23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밝히겠으나 세 작품을 대조한 결과 「金」과 「終篇」은 대대적으로 「長」에 수용되었다. 그 중에서 「金」은 「長」의 상권과 중권과 하권의 일부에 수용되어 있고, 「終篇」은 그 외의 「長」의 뒤 부분에 수용되어 있다.

여기서 변안 유형을 [번역성]과 [창작성]을 중심 요소로 제시하고(그림 1), 그것을 기초로 해서 「長」의 변안 유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도표 2>와 같다.

<그림 1> 변안 유형



14) 「韓國新小説全集」第九(1968, 乙酉文化社)의 중권 부분은 9장으로 되어 있으나 「長恨夢 中卷」(1921, 韓國圖書株式會社)의 목차는 8장까지로 되어 있다. 또 전자의 제2장 “懷舊(회구)”가 “自歎(자탄)”으로 수정되어 있고 “嗚呼崎嶇(오오괴구)”가 후자에서는 제3장으로, 전자의 “積怨(적원)”이 후자에서는 제7장으로 되어 있다. 두 문헌에서 목차와 본문의 장수가 일치되지 않은 것은 「長恨夢 中卷」에 아무 제목이 없는 제3장과 제8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잘못이다. 그래서 「長恨夢」 중권은 8장으로 세고 전편을 33장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lt;도표 2&gt; 『長』의 변안 유형

[+번역, -창작]	줄거리·문장에 이르기까지 원작을 따라 번역 함	(A)
[+번역, +창작]	문장을 삭제·추약하고, 새로 삽입하거나 줄 거리를 변경하여 번역함	(B)
[-번역, -창작]	다른 작품 등으로 인용함	(C)
[-번역, +창작]	원작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삽입함	(D)

『長』의 네 가지 변안 유형은 당연히 인물·장소 등을 한국식으로 바꾼 작업을 토대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대조 작업에 의하면 『長』에서는 전편을 통해 유형 (B)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유형 (B)은 더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하나는 원작의 문장을 번역하되 삭제·축약한 유형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문장을 추가한 유형이다. 추가하는 범위는 문장의 일부분부터 원작의 장(章)의 내용까지로 다양하다. 그러한 유형 (B)를 기초로 하는 변안 작업은 원작과 다른 『長』의 새로운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 이 새로운 주제는 바로 '정조(貞操)' 의식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長』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후반부에 이르면서 원작에 없는 부분이 부여되면서 원작보다 내용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후반부에 이르면서 [+번역] 요소가 줄어들고 [+창작] 요소가 많아졌음을 가리킨다. 물론 후반부에는 원작에 없는 내용, 즉 유형 (C) 및 (D)가 전·중반부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유형 (C)에 해당되는 부분은 심순애가 자신의 정조가 남편으로부터 유린을 당하자 한강대교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한 『長』 중권의 장면이고, 유형 (D)에 해당되는 부분은 심순애가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고 이수일에 대한 정조를 지켰다는 『長』 중권과, 남녀주인공이 재결합하는 『長』 하권 13장의

내용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으나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은 한국의 고대소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줄거리이며, 『脚本』에도 여주인공의 자살을 암시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終篇』 12장과 『長』 하권 13장의 결말 부분을 대조하면 문장이나 상황 묘사에는 거리가 있으나 남녀주인공이 과거를 회개하면서 막을 내리는 줄거리는 흡사하므로 원작의 영향도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면 원작에 없는 유형 (D)에 해당되는 것은 심순애가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결혼생활을 한다는 『長』 중반부의 줄거리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조 의식을 부각시킨 핵심 작업은 새로운 주제가 부각된 『長』의 중반부에서 주로 이뤄졌다고 해야 한다. 『長』의 후반부는 중반부에서 부각된 새로운 주제를 이어받아 결말을 맺기 위한 역할을 맡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長』의 변안의 특징에 대한 마땅한 평가이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長』의 상권, 중권, 하권을 『金』 및 『終篇』, 그리고 覺書[六] 및 『脚本』과 대조하기로 한다.

### 3.2 상권의 변안 형태

『長』 상권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작 중에서 『金』의 전편(1장~8장)과 중편(1장~4장)을 수용해 변안되었다. 다음 <도표 3>은 『長』 상권과 『金』을 대조한 결과이다.

<도표 3> 「長」 상권의 변안 형태

전편	1장	약간 변경하여 번역(사건의 순서를 바꿈)
	2장	거의 번역
	1장	거의 번역
	2장	거의 번역
	3장	그대로 번역
	4장	약간 삽입, 변경하며 번역
	5장	약간 변경하며 번역
	6장	약간 변경하며 번역
	7장	변경하여 번역(사건의 순서를 바꿈)
	8장	약간 변경하여 번역
중편	1장	약간 변경하며 번역
	2장	그대로 번역
	3장	삽입, 삭제하여 번역
	4장	약간 변경하여 번역

<도표 3>이 가리키듯 「長」 상권은 「金」의 문장을 축약하거나 사건의 순서를 변경한 부분이 있어도 원작을 대대적으로 수용하고 번역하는 방식, 즉 [+번역, -창조]의 변안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변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長」 상권의 3장과 10장은 줄거리와 문장에 이르기까지 원작을 그대로 번역했다.

아울러 「長」 상권에는 원작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문장을 삽입해 원작을 변경한 부분도 적지 않다. 하지만 원작을 변경했다 해도 줄거리를 바꾼 것이 아니라 문장의 앞뒤를 바꿈으로 사건의 순서를 변경한 것을 기본 형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 작업은 「長」 상권 1장과 7장에서 현저하다. 덧붙여 「長」 상권 2장에서는 「金」 전편 1장의 일부를 전편 2장에 끼어 넣어서 번역한다는 특이한 변안 방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립식 변안 형태는 줄거리를 맞추기 위해 취한 것이고 「長」의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

「長」 상권 1장(擲柶會)에서 사건의 순서가 바뀐 예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金」 전편 1장	「長」 상권 1장
도미야마(김중배)가 도착한 장면	
→카르타 놀이(일본 윗놀이)	→김중배의 내력과 가족 소개
→미야의 아름다움	→윗놀이
→도미야마의 직장과 가족 소개	→심순애의 아름다움
→도미야마의 수난(이 부분은 삭제되어 「長」 상권 2장에 끼어 넣었음)	→김중배의 심순애에 대한 호의
→도미야마의 미야에 대한 호의	→김중배의 직장
→도미야마의 내력	

다음 「長」 상권 2장(㉠~㉢)의 예에서는 「金」 상권 1장을 끼어 넣은 조립식 변안 형태를 볼 수 있다.<sup>15)</sup>

㉠“윗놀이는 열두 시가 지나서 비로소 마치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씩 흠 어지고 다만 남아 있는 사람은 심순애와 학생 복장 남자 한 사람이요, 그 외는 주인 김소사와 그 딸 순이 뿐이더라. …(생략)” < 「長」 상권 2장>

↑

“骨牌の會は十二時に迫りて終りぬ。十時頃より一人起ち、二人起ちて、見る間に人數の三分の一強を失ひけれども、猶飽かで殘れるものは景氣好く勝負を續けたり。富山の姿を隠したりと知らざる者は、彼敗走して歸りしならんと想へり。宮は會の終まで居たり。彼若疾く還りたらんには、恐く踏留は三分の一弱に過ぎざりけんを、と我物顔に富山は主と語合へり。

彼に心を寄せし輩は皆彼が夜更の歸途の程を氣遣ひて、我願くは何處までも送らんと、絶か念ひに念ひけれど、彼等の深切は無用にも、宮の歸の時一人の男付添ひたり。其人は高等中校の制服を着たる二十四五の學生なり。

…(생략)”

(카르타 놀이는 12시가 지나서 끝났다. 10시경부터 한 사람 가고, 두 사

15) 대조 작업이 쉽도록 「長」의 예문을 현대 국어로 옮기고 굵은 문자로 표시했다. 그리고 「長」에 수용된 원작 부분을 ‘↑’ 표시로 구별했다.

람 가서 잠깐 보는 사이에 전체의 삼분의 일 정도가 없어졌는데, 여전히 염  
중도 나지 않은 사람들은 팔팔하게 승부를 계속 한다. 토미야마가 잠시 자  
리를 비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저서 창피를 당해 사라졌다고 생각했  
다. 미야는 끝까지 남아 있었다. 그녀가 만약 일찍 돌아갔었으면 남아 있던  
사람들은 삼분의 일에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탐내는 얼굴로 토미야마  
는 주인과 이야기했다.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을  
심려해 되도록 어디라도 데리고 가 주리라고 강하게 원했지만, 그들의 소  
원은 미야가 돌아갈 때가 되자 한 남자가 옆에 앉은 것으로 무산되었다. 그  
사람은 고등중학교의 교복을 입은 24, 5살의 학생이다. …(생략)

< 「金」 전편 2장 >

㉠ “좌석 중에 학생복장 입은 사람과 또 한 사람의 남자는 김중배의 고  
만 무례(高慢無禮)한 행동을 무이 보아 그 신사를 바라보는 두 남자의 목  
자는 자연히 곱지 못하여 무슨 기회를 타든지 저와 같이 가증가통(加增加  
痛)한 위인의 면피(面皮)를 벗기어 다대한 무안과 욕을 보이리라 하며 남자의  
편에서는 은근한 사이에 벌써 사발통문을 들렀더라.

웃놀이를 시작하여 편을 짜려 할 때에 제비(抽籤)를 뽑아 편을 가르는데  
제비의 결과는 공교히 김중배와 심순애가 한편이 되었다. 김중배는 나의  
가장 흠모하는 여자와 한편이 됨을 하늘이 나로 하여금 성공케 도우심인가  
하여 은근히 기뻐하되, 그 외의 남자는 더욱 미워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  
(생략)”

< 「長」 상권 2장 >

↑

“…紳士の憎き面の皮を引剝かん、と手薬練引いて待ちかけたり。然れば  
宮と富山との勢は恰も日月を竝懸けたるやうなり。宮は誰と組み、富山は誰  
と組むらんとは、人々の最も懸念する所なりけるが、圖の結果は驚くべき豫  
想外にて、目指されし紳士と美人とは他の三人と與に一組になりぬ。始め二  
つに輪作りし人数は此時合併して一の大なる團樂に成されたるなり。而も富  
山と宮とは隣合に座りければ、夜と晝との一時に來にけんやうに皆狼狽騒ぎ  
で、忽ち其隣に自ら社會黨と稱ふる一組を出せり。彼らの主義は不平にして  
、其目的は破壊なり。則ち彼等は専ら腕力を用ゐて或組の果報と安寧とを妨  
害せんと爲るなり。又其前面には一人の女に内を守らしめて、屈強の男四人

左右に遠征軍を組織し、左翼を狼藉組と稱し、右翼を蹂躪隊と稱するも、實は金剛石の鼻柱を挫かんと大童になれるに外ならざるなり。果せる哉、件の組は此勝負に蓬き大敗を取りて、人も無げなる紳士も有繫に鼻白み、美き人は顔を赤めて、座にも堪ふべからざるばかりの面皮を缺されたり。此一番にて紳士の姿は不知見えざるぬ。男たちは萬歳を唱へけれども、女の中には掌の玉を失へる心地したるも多かりき…(생략).”

(…신사의 알미운 낮가죽을 벗기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미야와 토미야마의 기세는 마치 해와 달이 나란히 선 듯했다. 미야는 누구와 짝이 되고, 토미야마는 누구와 짝이 될지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었는데, 제비를 뽑은 결과 뜻밖에 주목받은 신사와 미녀는 다른 세 사람과 같은 짝이 되었다. 처음에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었던 사람들은 그 때 합쳐져서 큰 한 집단을 형성했다. 게다가 토미야마와 미야는 바로 옆에 앉았기 때문에 밤과 낮이 동시에 온 듯 모든 사람들이 떠들고, 한 순간에 그 옆에 사화당이라고 자칭하는 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들의 주의는 불평이며 그 목적은 파괴이다. 즉 그들은 주로 완력을 쓰고 다른 짝의 행복과 평안을 방해하는 것이다. 또 그 앞에는 한 여인을 끼고 굴강의 남자 네 명을 좌우에 둔 원정군이 조직되었고, 왼쪽을 남자조라고 자칭하고 오른쪽을 유린조라고 자칭하는데, 사실은 금강석(토미야마)의 콧대를 꺾기에 바빴다. 결국 겨냥 받은 조는 비참한 대패를 당해 교만한 신사도 과연 실망하고 미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창피를 당했다. 이 승부가 끝난 후에 신사의 모습은 사라졌다. 남자들은 만세를 외쳤지만 여자들 중에서는 손 안의 옥을 잃은 듯한 마음이었던 사람들도 많았다.…(생략))

<『金』전편 1장>

㉔ “모두 사람이 돌아간 후 심순애(沈順愛)는 벽에 걸렸던 망토(滿套)를 내려 몸에 두르며 그 외숙모 김소사에게 하직하고, 학생 복장 입은 사람도 심순애를 따라서 외투 소매에 팔을 끼우면 서 인사하고 한 가지로 대문을 나서서 마주치는 찬바람에 몸을 움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두 손은 외투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뒤에 떨어져 있는 순애가 오기를 기다리며 학생은 말을 한다.”

<『長恨夢』상권 2장>

↑

“宮は鳩羽鼠の頭巾を被りて、濃淺黃地に白く中形模様ある毛織のオール

を絡ひ、學生は焦茶の外套を着たるが、身を窄めて尻を遣過しつゝ、遅れし宮の辿着くを待ちて言出せり。”

(미야는 지난 보라색에 가까운 회색의 두건을 쓰고, 자감색 옷감에 회고 등그런 모양이 찍혀 있는 모직의 솔을 하고, 학생은 짙은 갈색의 외투를 입었는데 몸을 움츠리고 찬 바람을 맞으면서 늦게 오는 미야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말했다.) <『金』전편 2장>

이상과 같이 『長』 상권은 『金』의 전편과 중편의 일부를 [+변역, -창작]의 변안 유형을 중심으로 변안되었고 거기에 [+변역, +창작]의 변안 유형과 합쳐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원작의 줄거리와 주제가 그대로 수용되었다. 즉, 미야가 금전욕에 눈이 어두어져 약혼자인 캉이치를 버리고 부자인 토미야마로 시집을 간 사건을 계기로 캉이치는 근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사랑의 배신감과 슬픔을 이기지 못한 캉이치는 금전의 귀신인 고리대금이 되어서 복수를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복수도 가해자인 여주인공과 그 남편 및 여주인공의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복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타락시키고 자책한다는 간접적이고 비뚤어진 형태로 이뤄진다. 이러한 『金』의 줄거리는 ‘금전이나 사랑이냐’라는 주제를 형성하여 『長』 상권에 그대로 계승하게 되고 중권 이하로 계속 이어졌다.

### 3.3. 중권의 변안 형태

『長』 중권(1장~8장)은 『金』의 중편·후편·속편의 일부와 『終篇』의 2장 및 覺書[六]의 (14)의 일부가 복잡한 형태로 수용되었다. 다음 <도표 4>는 『長』 중권의 변안 형태이다.

<도표 4> 「長」 중권의 변안 형태

증편	5장	변경하고 번역(대화문의 삭제·축약이 심함)
	6장	앞부분은 번역하고, 증반에 이르면서 삭제를 반복하여 조립함. 후반부는 삭제하면서 번역함.
증편	7장	삭제·축약하면서 번역함.
후편	2장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번역
속편	3장	거의 번역
후편	2장	거의 번역(뒤의 대화문을 약간 변경)
「終篇」	2장(二)	거의 번역
속편	3장	많이 추가하면서 번역
후편	3장	삭제하여 번역(앞 부분을 삭제하고 뒤 부분을 그대로 번역)
증편	8장(二)	약간 변경하여 번역
후편	1장	"
후편	4장	"
후편	5장	"
속편	3장	많이 변경하여 번역(사건 순서가 거꾸로 된 부분이 많음)
覺書	[14]	<토미야마가 자신에게 냉정한 미야를 나무란다.>라는 내용을 수용하면서 김중배가 순애와 강제로 부부의 관계를 맺은 새로운 줄거리를 삽입했음.
속편	1장	많이 추가·변경하여 번역(앞부분을 삭제)
	2장	추가와 번역(앞부분인 투신자살 장면을 추가하고, 순애와 백낙관의 대화 내용은 거의 번역)
후편	6장	약간 변경하여 번역(뒷부분을 삭제)
후편	7장	많이 삭제·축약하여 번역(지문을 많이 삭제)

「長」 중권은 상권과 달리 원작을 그대로 번역한 부분([+번역, -창조])이 줄어들고 원작의 일부분을 삭제, 축약하거나 원작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변안 형태가 취해져 있다. 즉, 이 부분에

서는 [-창조] 요소가 줄어들고 [+창조] 요소가 늘어남으로써 원작과 다른 줄거리가 생기고 새로운 주제가 부각되었다. 그러한 작업은 주로 「長」 중권 2장과 6장에 집중되어 있다.

「長」 중권 2장을 예로 들면 원작의 문장을 삭제하거나 요약해서 심순애가 이수일을 배신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수일에 대한 속죄의 뜻과 잃어 버린 사랑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정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심순애의 삶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심순애는 결혼한 후에도 김중배와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새로운 내용이 삽입되어서 원작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있다.

“김중배에게 몸을 허락지 아니하기를 삼사년 동안이나 지나되 그 굳게 먹은 마음을 온전히 이루었더라. 그러므로 김중배는 심중으로 항상 앙양불락할 때가 없지 아니하되 항상 수심과 병색이 얼굴에 개일 날이 없음을 보고 순애의 즐거워할 것은 모두 하여주며, 하고자 하는 것은 임의로 하게 맡겨두어 아무쪼록 순애의 환심을 사고자 한다.” < 「長」 중권 2장 >

거기에 갈등이 심해지는 심순애 부부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날이 갈수록 수일을 그리워하는 순애의 심리가 원작을 수용하고(㉠), 새로운 대화문을 삽입하면서(㉡) 강조되었다.

㉠

“『여보, 글썄, 대답 좀 해요. 별안간에 무슨 성이 났소. 아아 내가 옥향이 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시기가 나서 그러하지. 그것도 뉘 죄요? 마누라가 이렇게 몰똥정하게 나를 대접하니까, 어따가 마음을 붙이겠소. 자연히 다른 계집이라고 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마누라가 내게 잘만 굴어부면 옥향이가 다 무엇이요. 월궁 항아가 오더라도 소용이 없을 터인데』” < 「長」 중권 2장 >

↑

“『其代りお前に註文が有るよ。俺を外へ出すまいと思つたら、お前の方でも其のやうに又俺に盡して下れなければ、ね、可いかい。俺が家を空けるのも、一つはお前の所爲だよ。毎も言ふ事だが、お前は何も冷淡で可かん。』”

夫婦の情愛が極めて薄い-薄いよりも、全で無いと云つて可い。」

(「그 대신에 너에게 주문이 있어. 나를 밖으로 안 나가게 하려면 너도 그렇게 하기 위해 나에게 잘 해 주지 않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 알아 듣니? 내가 놀아 다니는 것도 하나는 네 탓도 있어. 늘 말하는 듯 너는 냉정해. 부부의 정이 지극히 부족해-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어.)  
 <「終篇」 2장의 (二)>

㉞

“그러므로 김중배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점점 옥항에게로 향하는 마음은 많아지고 순애에게 향한 마음은 없어간다...(생략)”

“순애는 수일을 위하여 몸의 편안함을 기도하는 뜻으로 집안 사람이 모두 깊이 잠이 들고 계건 지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야밤 삼경에 홀로 일어나 수족을 정히 씻고 모란대 아래 영명사 앞에 있는 부도 앞에 이르러서는 정한수 한 그릇 떠다놓고 한참 동안을 엮다어 심중 소원을 축원하였다. ...(생략)”

“「어째서 그러해! 까닭을 말해야지.」 「술 냄새가 맡기 싫어서 그렇지요.」 하며 치마꼬리를 휩싸가지고 자리를 조금 피하여 앉는다. 김중배는 기가 막히는지 성난 얼굴이 다시 웃음으로 변하여 허허 웃으면서 「아무리 아직 지각이 없기로 여편네는 여편네된 직분을 알아야지. 그렇게 내 옆이 잠시라도 싫어서 피하려고만 하면 내가 피해서 어디로든지 가리다.」 하며 분연히 웃웃을 떼어 입과 밖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순애는 조금도 겁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하는 모양을 보고만 있을 뿐이라.” <「長」 중권 2장>

기술한 바와 같이 원작과 「長」은 공통적으로 여주인공과 그 부모가 금전욕에 눈이 어두워져 약혼자이자 실제적인 남편(사위)이었던 남자주인공을 배신하고 부갓집으로 시집간 행위를 ‘의리(義理)’에 어긋난 불의한 행위로 보고 있다.<sup>16)</sup> 이러한 사상은 원작과 「長」에서 공통적이지

16) 미야와 칸이치가 헤어지기 전에 육체관계를 맺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설이 없으나 「終篇」 2장(三)에 “だつて、貫…さんは私の本當の夫ですもの! 唯繼より先に肌身を許した夫ですもの!...(왜냐하면 칸이치 씨는 내 본래의 남편이니까! 타다쯔구보다 먼저 이 몸을 허용한 남편이니까!...)”라는窩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아 헤어지기 전에 이미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고 볼

만 남녀주인공이 재결합에 이르는 경위에는 큰 차이가 난다.

원작에서는 칸이치에 대한 사랑의 위치, 즉 사랑에 대한 의리에 어긋난 미야가 토미야마의 아이를 낳고 같이 사면서 죄의식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끝에 발광하고 이혼하게 되는데, 재결합의 근원은 발광했다는 것에 대한 동정심보다 미야가 토미야마와 이혼해서 칸이치를 배신함으로 잃어버린 '칸이치의 사랑을 받을만한 대상자'의 입장으로 복귀했다는 외적인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長』 쪽에서는 원작과 같은 경위로 심순애와 이수일이 비참한 삶을 출발했다가 순애가 수일에 대한 정조를 지키려고 남편과 부부의 관계를 계속 맺지 않았고, 결국 남편에서 그 정조를 강제로 빼앗기자 이수일에 대한 속죄의 뜻과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면서 발광으로 이르는 순애의 삶이 강조되어서 묘사되었다. 이렇게 순애가 정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강조되어 이수일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재결합이 이뤄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있다.

물론 원작에 정조 의식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적으로 봐도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정조 의식이 한국에 못지 않게 강하게 작용되어 있었고, 미야의 행동에서도 당시의 일본 여성들의 공통된 정조 의식을 찾아내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미야는 시집에서 아이를 낳았고 계속 칸이치에 대한 속죄 의식에 사로잡히면서도 『長』의 심순애처럼 정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거나 투신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지는 않았다.<sup>17)</sup> 이러한 차이점은 『長』에서는 사랑의 의리를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속죄의 강도 및 재결합에 이르는 경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가리킨다.

『長』 중권 6장의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은 원작에 없는 삽입된 줄거리이다. 순애는 한강대교 위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나 우연히 아래

수 있다.

17) 한광수, 「韓國에 있어서의 尾崎紅葉의 『金色夜叉』의 수용에 관한 연구; 변모된 히로인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3, 韓國日本文化學會, 1997년.

를 지나가려던 백낙관이 탄 배에 구원을 받는다. 순애는 백낙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으나 거절을 당하게 된다.

순애가 투신 자살을 둘러싸인 문제에서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점은 투신자살과 백낙관 및 수일을 만나서 죄의 고백을 시도하는 사건의 순서가 원작과 다르다는 것이다.

『金』	『長』
토미야마의 아내 사랑(후편 2장) →미야가 아라오를 만나서 죄의 고백(속편 1,2장) →미야가 강이치를 방문하고 용서를 청하지만 거절을 당함(속편 6장)	김중배의 아내 사랑(중권 2장) →김중배 부부의 갈등과 순애의 고민(중권 2장) →순애가 정조를 잃어버리고 투신자살을 시도, 백낙관을 만나서 죄의 고백(중권 6장) →순애가 수일을 방문하고 용서를 청하지만 거절을 당함(하권 2장)

위의 도표가 가리키듯 『金』에서 미야는 아라오(=백낙관)를 만나 죄의 고백을 한 후에 강이치를 직접 만나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長』에서는 투신자살을 시도한 다음에 죄의 고백을 하고 수일을 만나도록 줄거리가 변경되었다.

그리면 『長』에서는 왜 죄를 고백하기 전에 투신자살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사건의 추가로 인한 줄거리의 변경이라기 보다도 작품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봐야 한다. 순애의 투신자살은 더럽힌 몸을 씻어내고 타락하기 전의 깨끗한 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력한 정조 의식이 동기가 되어 있다.<sup>18)</sup> 죽어서 죄를 속죄한다는 순애의 결의는 투신자살에 실패했다 해도 더럽힌 몸은 씻어진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애는 결국 용서

18) 최경국, 「『金色夜叉』와 『長恨夢』의 比較研究」,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년, 70쪽.

를 칭한 백낙관에 거절을 당하고 만다. 그 후 순애는 남편과 별거하게 된다. 순애는 후일 수일을 만나 직접 용서를 청하게 되었지만 수일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 발광하고 만다.

다음은 『長』 중권 6장에서 순애가 백낙관에게 죄를 고백하는 장면의 일부본인데 원작을 거의 번역하는 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또 아니될 말이지. 이수일의 손으로 죽여주었으면 원이 없겠다 하는 말은, 그 회개한 마음이 대단히 좋으나 그렇게 말을 하고 보면 순애 씨는 이수일이만 알았지, 김중배라 하는 남편 있는 줄은 모르는 말이요구요. 남편은 어찌하려고 그러한 말을 하오. 남편에게 대하여 의리가 벗어나지 아니하겠소? 좀 생각을 해보시오구요. 그러하고 보면 처음에는 김중배로 인하여 이수일을 속였고, 지금은 또 이수일로 이하여서 김중배를 속이는 것이니, 한 사람 뿐 아니라 두 사람씩이나 속이려 하는 셈이니 한편으로는 전죄를 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으면 일것 회개한 본의가 없어요.」  
<『長』 중권 6장>

↑

「間に殺されても辭せんと云ふ其の悔悟は可いが、それぢや貴方は間有るを知つて夫有るのを知らんのじゃ。夫を奈何なさるなあ、夫に道が立たん事になりはせまいか、そこも考へて貰はにやならん。… 人の妻たる身で夫を欺いて、それで菅はんとは何事ですか。那樣貴方が了簡であつて見りや、僕は寧ろ富山を不憫に思ふです、貴方のやうな不貞不義の妻を有つた富山其人の不幸を慫まんけりやならん」

(『하자마에게 죽음을 당해서 된다고 하는 그 각오는 대단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은 남편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요? 남편에 대해 처로서의 도리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처로서 남편을 배신해도 그래도 상관이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당신이 생각한다면 난 오히려 토미야마가 가엾게 느껴져요. 당신 같은 부정 불의한 아내를 둔 토미야마의 불행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金』 속편 2장>

한편 원작에서는 『長』과 마찬가지로 아라오에서 거절을 당한 미야

는 그 후 캉이치를 만나 용서를 청하나 거절을 당하자 정신적인 고민이 심해져서 결국 발광하고 만다. 이렇듯 원작에서는 미야의 속죄부터 캉이치를 만나는 시간이 짧은 동시에 발광까지 이르는 경위가 정신적인 고민만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미야에 대한 동정심의 강도는 「長」에 비해 약하게 느껴지게 된다. 이에 반해 「長」의 심순애의 속죄 행위는 직접적이며 구체적이다.

「長」의 이러한 줄거리는 번안 작가의 여러 의도로 인해 변경되었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독자들에게 순애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함 이었고, 둘째는 정조를 지키는 순애의 태도가 정조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한국 민중에게 호감을 느끼기 위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 작품의 차이점은 한·일 민족의 민족성의 차이를 들어내는 것이다. 한국의 염정소설(艷情小說)에서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정조의 의식이기 때문에 정조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장면은 한국 고전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sup>19)</sup> 이것은 같은 염정소설이면서도 정조 의식

19) 「長」에 반영된 한국 고전 소설의 통속성은 투신자살을 시도한 순애가 백낙관이 탄 배에게 우연이 구원받는 장면에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지을 수 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힌 주인공이 투신자살을 시도하다가 배나 배에 유사한 것에 구원받는 장면은 다음과 같은 「淑香傳」(金圭泰編, 『韓國古典文學大系 小說集 1』, 1991년)의 장면과 공통된다. 누명을 사고 절망에 빠진 주인공 숙향은 다리 위에서 투신자살을 하다가 연꽃의 배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얼마쯤 간 곳에 큰물이 앞을 막고 있었으므로 숙향은 마침 잘 되었다. 이 강물에 빠져 죽자하고, 강가에 가서 하늘을 향해서 재배하고, 「박명한 이 숙향이는 전생의 죄가 중하와, 오세 때 부모를 잃고 낮이면 거리 방황하다가 밤이면 숲속에 의지하여 자오니, 외로운 단신이 의탁할 곳 없어서 눈물로 지내다가, 천행으로 장승상대에 의탁하여 대산 같은 은혜를 입삼고 일신이 안전하옵더니, 참혹한 누명을 쓰고 축화(逐禍)를 입사오매, 이 이상 참아 더 살 수 없어서, 부모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슬픔을 머금고 물에 이 몸을 던지오니, 천지신명은 이 불행한 숙향의 누명을 벗겨 주시옵소서.」하고 슬피 우니, 그 광경을 왕래하는 행인들이 보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숙향은 한손으로 치마를 추겨 잡고, 또 한손으로 옥지환을 쥐고서 강물에 뛰어 들었는데, 수세(水勢)가 급한데다가 풍랑이 일어서 행인이 구하려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 부침(浮沈)하며 떠내려 가는 것을 탄식할 뿐이니라. 숙향이 물속에서 허위적거릴 때, 문득 물가운데서 매

이 약한 일본의 고전 소설과는 다른 한국 고전 문학의 특징이며 민족성의 발로이다. 이것은 또 『長』의 한국 고전 소설의 통속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작품성을 나타내기도 하다. 셋째로는 순애의 정조를 시키려는 삶과 일제의 강력한 통치하에서 억울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당시의 민중들의 공감을 사기에 필수적인 줄거리이었다. 당시의 독자들은 마음을 억제 당하면서 민족의 혼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힘겨운 삶을 겪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몸은 김중배에게 몸을 빼앗겼더라도 마음은 항상 사랑하는 수일을 향하면서 자신의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순애의 삶과 흡사하다. 『長』이 당시의 한국 사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한 『長』의 줄거리가 당시의 독자들의 정서와 상황에 잘 맞았기 때문이다.

심순애의 투신자살을 둘러싼 두 번째 문제점은 『脚本』이 미친 영향 여부이다. 小栗風葉가 쓴 신과극 '金色夜叉'의 각본인 『脚本』의 마지막 부분에는 캄이치와 미야가 재결합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라오가 발광한 미야를 용서하도록 캄이치를 설득하는데, 그 중에서 주변 사람들도 미야 자신도 자살을 당연한 속죄 행위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

---

판만한 무엇이 나타났으므로 속향이 그 위에 기어오르자, 편하기가 마치 육지와 같았으니, 이윽고 오색의 구름이 일어나는 곳에서 양의 머리를 가진 소녀들이 옥피리를 불면서 연엽주(蓮葉舟)를 급히 저어 와서 말하기를 「용녀(龍女)는 여서 그 부인을 모시고 빨리 배에 오르시오.」 하고 권하니, 매같이 변하여 고운 여자가 되더니 속향을 안고서 배에 오르매, ...”

그 외에 『謝氏南征記』(金圭泰編, 『韓國古典文學大系 小説集3』, 1991년)에는 교씨의 계교에 걸려 누명을 사고 귀양길에 오르게 된 유한림이 강가에서 도적에게 쫓겨나 투신자살을 시도하다가 사씨부인이 보낸 배에 구원을 받은 상황이 있다. 또 장르는 다르나 『血의 淚』(구인환역음, 『고교생이 알아야 할 고전』, 1994)에는 인생의 허전함을 견디지 못한 김관일의 부인이 대동강에 몸을 던졌으나 배에 탄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장면이 있다. 그러한 한국소설과 『長』 중권 6장의 공통점은 구원을 받은 방법과 경위에는 차이가 있어도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큰 한을 품었고, 구원받는 것이 배, 아니면 배에 해당되는 것이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을 통해 주인공은 속죄감과 위안을 받는다는 점은 공통된 줄거리이다. 이러한 줄거리는 이수일이 꿈속에서 심순애를 용서하게 된 “꿈사상”과 더불어 고전 소설의 통속성을 나타낸다.

사하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있다.

「何にも通ぜんやうじゃ。可哀さうに、致頭發狂してうたと見ゆる。(と目を連瞬き)何時か上野で圖らず逢うた時に、何うしたら罪を容るさるゝか、悔へてくれいと僕に縋つたのじゃ、けれど、僕も有繫に死ぬとは言めんじやつた、強つて聞くから、覺悟一つじゃと言うて別れたが、宮さんには其れが 解けんのちやつたらう。じやが宮さん、貴方は解かんでも、自然に解いたのじゃ、間には私から取成して上げますぞ。呼、貴方は死んだも同然、生きてる死骸じゃ。」

(「아무 말이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네. 불쌍하기를, 과연 미쳐 버렸구려.(라고 하면서 눈을 깜박거리면서)언젠가 우에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 가르쳐 달라고 나에게 울면서 매달렸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죽으라고 말할 수 없었네. 그래도 계속 물었기에 당신의 각오에 달려 있다고만 하고 헤어졌는데, 미야 씨에게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소. 하지만 미야 씨,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자연스럽게 이해했어요. 하자마에게는 내가 대신에 용서를 받겠어. 아아, 당신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 살아 있는 주검이여.」) <『脚本』 제6막>

이 신파극의 칸이치와 미야가 재결합하는 장면에서 미야가 흰 속옷을 입고 등장한다. 그것은 칸이치를 만나서 언제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脚本』에서 해설되어 있다.

「那通り白無垢を着て居るが、那はお前さんの所で死ぬ時の用意だと言つて居るんですよ。それでもね、別に飛出す様子も無いから、氣狂いの事だと思つて爲るがまゝに爲せて置くと、今日白を着たまゝ偶いと居なくなつたものだから、私も喫驚して、是は的りお前さんの所だと思つて追駈けて來たのですが…」

(「저렇게 보시는 대로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저것은 자네 앞에서 죽기 위한 준비라고 말하고 있지. 그래도 집을 나갈 것 같지도 않아 발광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오. 그런데 오늘더러 흰 옷을 입은 채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나도 놀래서 아마 자네한테 갔을 거라 생각해 이렇게 달려온 거야…」) <『脚本』 제6막(靖國神社裏)>

그러한 사실만으로 『長』에서 전개된 순애의 투신 자살의 삽입에 『脚本』이 영향을 미쳤다고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심순애의 투신자살을 검토하는 실마리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長』 중권은 [+번역, +창조]를 중심 형태로 하고 [+번역, -창조]·[-번역, ±창조]의 변안 유형이 합친 형태로 『金』 중편·후편·속편 및 覺書[六]과 『終篇』 2장을 수용했다. 그 결과 이들 원작을 조립하는 식으로 엮고, 그 중간 중간에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는 변안 작업을 취함으로써 원작보다도 정조 의식을 강도 높게 제시하면서 작품의 흐름을 바꾸는 효과를 내고 있다. 『長』 중권서 부각되는 정조 의식은 『長』 후권에 이르러 이수일과 심순애가 원작과 다른 경위로 재결합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데 지대한 몫을 하고 있다.

### 3.4. 하권의 변안 형태

『長』 하권에서는 『金』의 하권 1장부터 5장까지와 『終篇』의 전편이 수용되었다. 먼저 『金』를 위주로 해서 변안된 『長』 하권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변안 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 3.4.1. 하권 1장부터 5장까지의 변안 형태

<도표 5>는 『長』 하권을 『金』과 대조한 결과이다. 『長』 하권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대부분이 『金』을 삭제하면서 번역하는 [+번역, -창조]를 중심 유형으로 하고 [+번역, +창조]의 변안 유형이 섞은 방식으로 변안되었다.

원작에서 삭제된 사건으로서는 『金』 속편 5장의 아쿠라 마사유키와 스즈에 관한 사건이 있다. 아쿠라 마사유키는 칸이치의 스승인 고리대금 와니부찌 타다유키의 계교로 인하여 사서위조죄(私書偽造罪)로 징역을 받게 된 사람이며, 그 충격으로 발광한 그의 모친의 방화로 와니부찌 부부는 사망하게 된다. 스즈는 아쿠라의 약혼녀이며 징역 사건 이후 파

혼되었다. 캉이치는 출장을 가는 길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순수한 사랑에 감명을 받았다. 이 아쿠라 부분은 『終篇』 8장에서 캉이치가 중매가 되어서 혼인이 성사되었는데 그에 해당되는 내용이 『長』 하권 6장에서 축약되어서 소개되었을 뿐이다.

<도표 5> 『長』 하권의 번안 형태(1)

속편	4장	삭제·축약하여 번역(뒷부분에 축약한 부분이 많음)
	5장	삭제하여 번역(앞 부분을 삭제)
속편	6장	삭제하여 번역(앞 부분과 중간 부분을 삭제)
	7장	삭제·축약하여 번역(앞 부분을 축약, 회화문을 다소 삭제하면서 재조립)
속편	8장	거의 번역
속속편	1장	많이 삭제·축약하여 번역(도입 부분만 번역. 줄거리는 원작을 따르되 상황 묘사는 대부분 변경. 경치 묘사는 대부분이 축약)
	2장	삭제·축약하여 번역
	3장	추가·삭제하여 번역(대화문을 약간 삭제하면서 번역. 많은 지문을 추가)
	4장	추가·삭제하여 번역(앞 부분을 삭제하며 위은 식으로 번역. 지문을 새로 삽입하며 후반부를 거의 번역)
	5장	삭제하여 번역(중간에 삭제부분이 많음)
신속편	1장	삭제·축약하여 번역(후반부는 축약함)

또 캉이치가 보양하러 찾아간 온천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린 『金』 속속편 1장과 2장의 줄거리를 『長』 하권 4장은 따르고 있으나 경치 및 숙소에 대한 묘사의 상당한 부분을 축약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특히 『金』 속속편 1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치 묘사는 『長』에서는 삭제·변경되었다. 예를 들면 원작의 먼 산 속이던 장소는 『長』에서는

가까운 곳으로 변경되었고, 숙소도 원작에서는 여관이지만 「長」 쪽은 절(寺)이었다. 또 숙소의 하인은 원작에서는 여자아이이지만 「長」 쪽은 스님으로 되어 있고, 자살을 결심한 사야마(=최원보)를 처음 본 장소는 원작은 목욕탕이고 「長」에서는 대문 앞으로 되어 있다.

한편 새로 추가된 줄거리는 심순애의 진퇴 문제이다. 투신자살에 실패한 순애는 그 후 남편과 별거 생활을 시작한다. 이 하권 2장의 내용은 「金」 속편은 물론 「終篇」 및 覺書[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순애는 대동강에서 백낙관에게 구함을 입은 후 다시 김중배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그날로 평양을 등지고 서울로 향하여 친가 부모의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심택 내외가 지각없음을 꾸짖었으나 한가지로 먹고 있는 순애의 마음은 능히 변하지 못하고 날과 달을 친가에서 심란하게 보낼 제, 다만 주야로 바라는 바는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수일의 얼굴을 한 번 다시 보고 용서하여 주겠다는 말 한 마디를 기다린다.” <「長」 하권 2장>

이렇듯 「長」 하권 1장부터 5장까지는 「金」을 변경한 부분이 많은 것이 특징이지만, 주된 줄거리는 원작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長」 중권부터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후반부로 계승하기 위한 중계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 3.4.2. 하권 6장부터 13장까지

「長」 하권 6장부터 13장까지 부분에 수용된 것은 「終篇」 1장, 2장의 (一)·(二)·(三), 4장의 (三), 6장의 (一)·(二), 7장의 (二), 9장의 (四), 10장의 (一)·(二)이다. 다음 <도표 6>은 「長」 하권과 「終篇」을 대조한 결과이다.<sup>20)</sup>

20) 「金」 신속편 3장은 「終篇」 2장의 (一)에 요약되어서 수용돼 있다. 그 부분은 「長」 하권 7장의 내용과도 유사하다. 그래서 「金」 신속편 3장은 「終篇」 2장의 (一)을 통해서 「長」 하권 7장에 간접적으로 수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도표 6> 「長」 하권의 변안 형태(2)

1장	앞 14행만을 번역
「金」 신속2	5행만 번역
1장	삭제하여 번역(중반부의 지문과 대화문을 삭제)
2장(-)	삭제·축약하여 번역(앞부분의 많은 부분을 축약, 삭제) 覺書[六]의 (14)·(17)을 암시적으로 수용한 「金」 신속편 3장의 편지가 간접적으로 수용되어 있음
2장(三)	삭제·축약하여 번역(순애와 모친의 대화를 크게 변경하 여 줄거리가 바뀜) 「終篇」: 모친이 미야에게 아내로서의 도리를 강조하 여 나무람 → 「長」 : 모친이 순애를 동정함
6장(-)	삭제하여 번역
6장(二)	삭제하여 번역(순애의 부모의 대화문을 원작에 따르되 삭 제를 번갈아면서 내용을 변경) 「長」: 순애를 김중배에게 시집 보낸 것을 회개함(「終 篇」에는 없음) 「終篇」: 정처 대우를 못 받은 것 에 대한 불만→ 「長」: 딸에 대한 회개
7장(二)	삭제하여 번역(전반부를 번역하고, 후반부를 삭제, 아래와 같은 줄거리가 변경되었음) 「終篇」: 칸이치가 고리대금을 폐업함→ 「長」: 이수일 이 그만두지 않았음 「終篇」: 아라오가 부친의 부탁을 거절→ 「長」: 백낙 관이 부친의 부탁을 받아들임
9장(四)	앞 9행만을 약간 변경하여 번역. 뒷부분은 삭제하여 번역
4장(三)	삭제하여 번역
9장(四)	삭제하여 번역(회화문과 후반부를 삭제)
10장(-)	삭제·축약하여 번역(도입 부분을 삭제하여 환경 묘사를 축약·변경)
10장(二)	삭제하여 번역(삭제가 심함)
(12장)	재결합의 묘사는 공통하나 표현 면에 차이가 있다. 원작 의 줄거리를 따르면서 변안 작가가 추가한 부분이라 봐 야 함.

이 부분에 속하는 번안 형태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원작을 삭제·축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는 [+번역, +창조]의 번안 유형이 많이 취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長』 하권 7장·8장·9장·10장·12장에 해당된다. 다만 『長』 하권 13장(두 페이지)은 남녀 주인공들이 먼 경치를 보면서 과거를 회개한다는 줄거리가 『終篇』 12장과 공통되나, 표현이나 세부의 묘사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희박하므로 [-번역, +창조]의 번안 유형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예외적으로 다루었다.

두 번째는 여기 저기 삭제하고 번역한 문장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에 끼어 넣어 조립하는 번안 형태이다. 『長』 하권 6장에서는 『終篇』 1장의 줄거리와 직접 관계 없는 『金』 신속편 2장의 내용을 번역해서 끼어 넣었다. 또 『長』 하권 7장에서는 『終篇』 2장의 (一)에 『金』 신속편 2장의 편지 내용을 끼어 넣었고, 『長』 하권 10장에서는 『終篇』 9장과 직접 관계가 없는 4장의 (三)의 일부분을 번역하고 끼어 넣었다. 이러한 특수한 번안 수법은 줄거리를 맞추기 위해 관계가 없는 원작의 한 부분을 채용한 것이므로 미숙한 번안 형태가 엿보인다.

다음은 『長』 하권 10장의 일부분인데, 『終篇』 9장(㉑)의 줄거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4장의 (三)(㉒)를 번역하여 끼어넣어 줄거리를 맞춘 수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여보게 수일이, 어서 결심하게. 내가 자네 결심하였다는 말을 들어야 하겠네.」

수일은 마음을 결단한 바가 있는 듯이 고개를 들며,

「여보게 백낙관, 자네 말대로 내가 그것은 결심하겠네.」

「응 ... 결심하였어? 그러면 자네는 오늘은 세례를 받은 셈이니 내일 부터는 단정코 고리 대금 영업은 폐지할 테이지?」

「내일까지 어디 기다리겠나.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폐지하였네.」

「허허, 대단히 고마운 말인세. 그러면 자네는 부활(復活)한 사람일세.」

백낙관은 손을 들어 수일의 손을 짝 권다.

손을 잡은 사람이든지 손을 잡힌 사람이든지 한참 동안 말은 없으니 구회를 이기지 못하여 창연히 눈물을 금치 못한다.

「아... 수일이...」

「백낙관, 나는 길고 길고 다시 긴 꿈을 꾸었네그러。」

「허허, 자네가 이제 긴 꿈을 깨었나 ... 꿈은 깨었지만 자네의 세상은 역시 적막하이 그려.」

「...」

「자네와 같이 적막한 생각을 울고 있는 사람이 역시 꿈을 깨어서 한 사람 또 있네...」

「...」

수일은 대답치 아니하고 다만 미소를 띄우며 고개만 좌우로 흔든다.

< 「長」 하권 10장 >

↑

㉠ 「間、未だ決斷は付かんかな。(이하 삭제)」

「だから、許さうと囊僕は約した。」...

(「하자마야, 아직 결심을 못했니? (이하 삭제)

「그래서 아까 용서한다고 약속했잖아.」...) < 「終篇」 제9장 (四) >

㉡ 決然と言發ちたる貫一は、思入りたる氣色にて、

「荒尾君、僕の決心は付いた!」

「おゝ、決心が付いたか! ちや、今日も是を洗禮にして、明日から斷然高利貸を歇めて下れるな?!」

「明日までも無い、今日、今から歇めた!」

「おゝ、復活!」

荒尾は衝と寄りて貫一の手を握りぬ。握る者も握返す者も、共に泫然として涙の下るを抑へ得ざりき。

「間!」

「荒尾君! 長い、長い厭な夢だった!」

「夢は覺めた。ちやが、覺めても君の世は寂しい...?」

「.....。」

「同じ寂しさを泣いて居る者が一彌張夢から覺めて、未だ一人ある...」

「……。」

貫一は唯微に首を掉れるのみ。……

(굳게 결심한 모양으로 말한 칸이치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라오 군, 난 결심했어!」

「오, 결심했어! 그럼, 오늘 일을 세례로 해서 내일부터 단호히 고리대금을 그만둘 거지?!」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네, 오늘, 이 순간부터 그만두겠어!」

「오, 부활!」<sup>21)</sup>

아라오는 쩍싸게 다가서서 칸이치의 손을 잡았다. 잡은 사람도 잡힌 사람도 서로 말없이 쳐다보며 눈물을 흘린다.

「하자마!」

「아라오군! 길고 긴 악몽이었어!」

「꿈에서 깬어. 하지만 깨어도 자네 세상은 쓸쓸해…?」

「……。」

「자네와 같이 쓸쓸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역시 꿈에서 깨어서, 더 한 명 있네…」

「……。」

칸이치는 고개를 숙일 뿐이다.……) <『終篇』 제4장 (三)>

이것에 속한 양 작품의 가장 큰 사건은 결말 부분인 남녀주인공의 재결합이다. 발광한 순애에 대한 주변 사람들과 순애의 부모들이 보여준 반응과 언동에는 『終篇』과 『長』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남편과 인연을 끊으며는 여주인공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終篇』 2장의 (三)을 보면 미야의 모친이 시댁을 찾아와 미야를 나무라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覺書[六] (14)의 “모친이 찾아와 병으로 누워 있는 미야를 나무란다”라는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야는 토미야마와 이혼하고 칸이치와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을 털어놓지만 미야의 모친은 딸이 토미야마의 아내로서 다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심하게 비판했다.

21) 『長恨夢』에서 보이는 기독교 사상은 『終篇金色夜叉』의 번안을 통해 수용된 것이 분명하다.

「何と云う言草ですよ! お前は那樣我儘を言つて、一體それで唯繼さんに濟むとお思ひか。いゝえ、唯繼さんは濟ますに爲てからが、私が濟まさないよ。那樣太腐れの我儘を誰が通させるものか。考へて御覽、自分で好き好んで來て、爲たい放題の榮耀榮華も爲飽きて、今更夫が厭になつたから生家へ歸る! 何口で言へた義理だらう。恩知らずと云つて可いか、罰中りと云つて可いか、全でそりや女郎揚りか何かの妾根性と些とも變らないぢゃ無いか。鳴澤の娘は那樣躰方は爲てないからね! 死ぬならお 死に! 氣が違ふなら勝手に違ふが可い! 決して家へは寄せ付ける事ぢゃ無いから。」

(「그게 말이나 되니! 넌 그런 말도 못한 말을 해서 도대체 타다쓰구가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니? 아냐, 만약 타다쓰구가 봐 준다고 해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런 뻔뻔스러운 생각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니? 생각해 봐라, 자기가 원해서 시집와서, 하고 싶은 대로 영요영화를 누려온 생활에도, 남편에게도 이젠 싫증이 난다고 친정으로 간다고! 왜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까!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 해야 할까, 벼락 맞을 놈이라 하면 좋은지. 그건 기생했던 놈들의 쌍놈들이 하는 말이지. 시기자와 씨 집안의 딸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네! 죽고 싶으면 너 혼자 죽어! 미치려면 미치면 돼! 하지만 절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지 않을 테야.」)

<「終篇」 2장의 (三)>

이 부분을 수용한 「長」 하권 7장을 보면 이미 김중배와 별거한 순애가 옛날 이수일이 거주하던 방에서 그 모친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친은 순애에게 동정심을 면하지 못하는 애달픈 장면으로 변경되었다.

「이...아애, 김...김집아, 약 가져왔다. 어서 일어나 약 먹어라. 응, 잠 들었니...?」

순애는 홀연 눈을 뜨며 그 눈에는 노한 기운이 가득하여,

「어머니는 일상 김집 김집 하시니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소. 그렇게 그 말은 하지 말래도 이혼까지 한 후에도 그런 말씀만 하신단 말지요? 그 말씀만 내 귀에 들려주지 아니하면 약보다 더 낫겠소...」

하며 순애는 다시 눈을 감고 벽을 향하여 돌아눕는다.

모친은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여, 흐르던 눈물은 어느덧 없어지며,

「아이구, 내가 잊었구나. 그저 늙은 어미가 정신이 사나와서 그리하였구나. 약 먹어라. 내가 저리하면 나 먼저 죽어야지, 저 꼴을 이 늙은 부모더러 어찌 보라느냐?」

순애는 마지 못하여 두 팔을 짚고 일어나서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약그릇을 붙잡으며 스러져가는 목소리로,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가셨소?」

「네 병으로 하여서 의원 보러 가시나보다라.」

「아이고, 어머니, 나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목숨이 오래지 아니할까 보오. 왜 딸자식은 낳으셨소. 부모께도 불효요, 제 신세도 가련하지요.」

<『長』 하권 7장>

다음은 발광한 딸을 불쌍히 여긴 부모가 남자주인공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의 친구인 아라오(=백낙관)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겠다. 『終篇』 7장의 (二)와 그것을 수용한 『長』 하권 9장을 보면 발광한 딸과 남자주인공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그녀의 부모가 아라오 및 백낙관에게 비는 장면이 나온다.

「…然し、數奇なる宮さんの運命は時と共に進んだ。悔悟に繼ぐ悔悟、苦痛に加ふる苦痛を以てした其結果が、今日の精神錯亂! それまでに至れるものを猶且つ責むると云ふのは、そりや涙を知らん冷血動物持ちゃ。僕も冷血動物には成りたう無い、間も冷血動物に爲さたう無い。宮さんに對する間の怒、間の怨、間の憎しみ、其等は誓うて僕が解かせにや惜きませんちや。必ず解かせます! 解かすると僕が誓うたからには、貴方も最う安心して、貫…は許した、と歸つて宮さんに言うて上げて下さい…」

(「…하지만 미야 씨는 불우한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왔소. 회개에 회개를 거듭하고, 고통에 고통을 반복한 결과 오늘날의 정신이 미쳐 버렸어. 이렇게까지 불쌍한 사람을 더 이상 나무란다는 것은 눈물도 없는 냉혈동물이죠. 저도 그런 냉혈동물이 되고 싶진 않고, 하자마도 냉혈동물로 만들고 싶지 않소. 미야 씨에 대한 하자마의 화난 마음, 하자마의 한, 하자마의 원한 마음. 그것은 반드시 제가 풀겠습니다. 반드시 풀겠습니다! 푼다고 제가 약속한 한 당신도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가서 미야씨에게 Kang이치는 용서했다고 말해 주세요. …」)

<『終篇』 7장의 (二)>

「…그러나 순애씨가 근심을 더하고, 고통에 고통을 더하여 드디어 오늘 날 실성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 모양이 된 후까지도 순애씨를 책망하는 것은 사람의 정이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무 짓을 하든지 이수일의 원망과 분함과 한은 내가 맹세하고 풀어들릴 터이니 염려 마시고, 가지거든 순애씨더러 이수일이 용서하여 준다더라 말씀 한 마디만 하여주소요。」

<「長」 하권 9장>

하지만 원작은 위의 아라오의 대화 뒤에 캄이치와 미야가 재결합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나, 「長」 하권에서는 생략된 채 곧바로 순애의 부친의 소원은 받아들이고 백낙관은 수일을 설득해서 순애와 수일은 화해하게 되도록 줄거리가 변경되었다.

「…貴方は未だお知りは有るまいが、間も今度改心しまして、なあ。六年間の非を悟って、愈よ眞人間に立歸りましたぞ。」…「僕は又、然うなつた間で有るからして、仍更宮さんに逢はせ難いですちや。以前の間なら管ひは爲ません、彼自身さへ得心なら、勝手に逢はうと何う爲うと、僕は冷かに傍觀するのみちや。」…

「しますと、眞人間で無い以前の貫一なら、娘に逢うても貴方は黙つて見て居る、人間の道を以て左や右う言ふべきでは無い。だが、今は最う眞人間に立歸つた貫一で有るからして、何うも宮に逢はされない、と恚う貴方は被仰るのです?」…

「…他の妻たる者の所へ、夫の許しも無うて男が近かるるものと思ふですか、縦んば又近き得るにもせい、假にも富山の妻たる名目を持つた其宮さんに對してちゃ、眞に宮さんが満足さるゝやうな辭なり、行爲なりが、果して間に出來得るものと思ふですか。まあゝ、今日は貴方もお歸へりなさつて、能う一つ考へて見らるゝが可いです。」…

(「…당신은 아직 모르신 일이지만 하자마도 이번에 회개했어요. 6년간 저질렀던 잘못을 회개해서 드디어 다시 성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또 전의 하자마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더욱 미야 씨를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전의 타락한 하자마였으면 상관치 않지요. 본인이 그렇다 면 둘이 만약에 만난다고 해도 저는 옆에서 보기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참사람이 아닌 이전의 캄이치라면 딸을 만나도 당신은 가만히

있고, 사람의 도리 등을 이유로 비판할 리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벌써 성실한 사람이 된 캄이치이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미야를 만나게 해 줄 수 없다고 당신은 말하는 건가요」…

「…남의 처가 있는 곳에 남편의 허락 없이 딴 남자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또 갈 수 있다고 해도 적어도 토미야마의 처의 입장에 있는 미야 씨에 대해 당신이 진심으로 만족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과연 하자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히여튼 오늘은 돌아가셔서 덕덕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終篇』 7장의 (二)>

「그러면 백낙관씨를 나는 믿고 가요」

심택은 홀연 회색이 만면하여 기꺼운 보고를 그 아내와 딸에게 전하고 자 총총히 작별하고 병원으로 다시 향하여 가니라. <『長』 하권 9장>

이렇듯 원작에서는 캄이치가 고리대금을 그만둔 시기가 『長』보다 훨씬 이르렀으나 미야를 용서하기를 주저하게 되어 두 사람의 재결합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다. 이에 반해 『長』 하권 9장에서는 심순애의 부친의 부탁을 받아들인 후 하권 10장에서 백낙관으로부터 설득 받은 이수일은 곧바로 고리대금을 폐업하기를 결심하고 순애와의 재결합으로 이르도록 줄거리가 변경되어 있다.

이러하듯 두 작품에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풀기 위해 먼저 백낙관이 심순애 부친의 부탁을 수락한 이유로부터 대조할 필요가 있다.

『長』에서 백낙관이 순애의 부친이 부탁을 받아들이고 수일과 만나게 해 주기에 이르는 이유는 순애의 마음 고통이 한계를 넘었고 백낙관이 그녀가 발광한 것에 대해 동정심을 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長』 하권 9장에 나와 있다. 이에 비해 원작은 어디까지나 미야가 토미야마와의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았다는 외면적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토미야마와 결혼하는 것으로 잃어 버린 캄이치에 대한 '의리'를 다시 세운 것에 더욱 큰 초점을 두어 있다는 것이다. 남녀주인공의 재결합에 대한 이러한 양 작품의 차이는 아라오와 백낙관이 각각 캄이치와

이수일을 재결합하게 설득하는 말에도 반영되어 있다.

「けれど、如何に斷るに忍びんからと云うて、假にも彼は富山の妻ぢゃ、氣は違うても妻たる名義は違はん、殊には、現在其の富山の扶養に依つて入院して居る所へ、君を連れて行く。不義の手引きを爲るのも同じぢゃ、僕はそれが出来んと斷つた。・・・其の謎が漸と解けたと見えて、丁度今朝ぢゃ、癒よ富山から離別を取つた、籍も一昨日鳴澤へ復した、と老人自ら報告にきたのぢゃ。」

(「하지만 아무리 거절하기 불쌍하다고 해도 그래도 그녀는 토미야마의 아내야, 미처도 아내는 아내지. 또 특히 지금 토미야마가 부양으로 인하여 입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네를 데리고 간다. 불의를 도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난 그런 짓은 못한다고 거절했어. ... 그 수수께끼를 겨우 풀 것 같아 마치 오늘 아침이야, 드디어 토미야마와 이혼했다, 호적도 그에게 시가지와로 돌렸다고 노인이 스스로 보고하러 왔다 구려.」)

<「終篇」 9장의 (四)>

“그러나 지금도 그 여자가 만일 김중배의 아내라 하는 명목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마음이 쓰이지 아니하였겠으나 이미 김중배하고 인연을 끊은지는 오래 되고, 지금은 순전한 남이 되었는 고로 나도 장담을 하고 금명일 내로 수일을 데리고 병원까지 가겠노라 약조를 하였네.”

<「長」 하권 10장>

「長」 하권 10장에서 언급된 순애의 이혼 문제는 이 부분에서 갑자기 거론되고 원작에 비해 너무 짧고 강력하게 언급되었다. 그래서 원작은 불의에서 의로 진행되는 경위가 큰 관심거리임에 비해 「長」에서는 ‘고통·슬픔’을 겪고 용서를 받음으로서 ‘위안’으로 이르는 경위에 좀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들이 지녀야 했던 것이 바로 ‘인내와 동정’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작품을 보면 원작은 사랑보다 의리가, 「長」 쪽에서는 사랑이 의리보다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은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심정적인 흐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한다. 한편 의리는 어떤 약속이나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 및 생활 요소이므로 잃어버린 의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비되면서 잃어버린 조건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서 「終篇」은 캉이치가 고리대금업을 폐업한 후 미야를 용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長」에서는 심정적 고통을 통과한 순애의 노정과 그것에 대한 수일의 동정심이 전날의 잘못된 심정적 관계를 짧은 기간에 씻어 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長」 하권 6장부터 13장까지는 「終篇」을 원작으로 변안되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그 변안 작업은 원작을 [+번역, +창조]를 중심으로 하는 변안 유형으로 수용하면서 중권에서 이어지는 '정조' 의식을 주된 주제로 하면서, 원작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재결합하는 하권의 줄거리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후반에서는 작가의 창의를 주입하여 오히려 원작보다도 내용의 폭을 넓혔다"는 「長」에 대한 종래의 평가는 마땅하지 못한 평가라고 해야 한다.

#### IV. 覺書[六]과 「長恨夢」의 결말부분의 관련성

마지막으로 覺書[六]이 「終篇」에 수용된 형태를 나타낸 <도표 1>과, 「終篇」이 「長」에 수용된 형태를 나타낸 <도표 6>을 비교해 보고 「長」과 「終篇」 및 覺書[六]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대조 결과인 <도표 7>을 보면 「長」 하권의 6장부터 13장까지에서 생략된 「終篇」 2장의 (二)와 5장을 제거한 약 80%가 覺書[六]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며 「長」 하권의 결말 부분에는 覺書[六]을 수용한 「終篇」 부분이 대부분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長」에 수용되지 않았던 원작의 내용이 캉이치에게 고리대금업을 폐업시키려거나 아라오의 빛을 갚아 준다거나 미쓰에에 관한 내용 등 주변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남녀주인공의 재결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흥미스럽다. 물론 이

러한 결과만으로 覺書[六]이 「長」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결론짓기에는 부족하나 새로운 시야로 「長」의 후반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도표 7> 覺書[六]과 「長」 결말 부분의 관련성

1장		覺書와 동일한 내용	6장
2장	(一)	覺書와 동일한 내용	7장
	(二)	覺書와 동일한 내용	
	(三)	覺書와 동일한 내용	7장
3장			
4장	(一)		
	(二)		
	(三)	覺書와 동일한 내용	10장
5장	(一)	覺書와 동일한 내용	
	(二)	覺書와 동일한 내용	
6장	(一)	覺書와 동일한 내용	8장
	(二)	覺書와 동일한 내용	8장
7장	(一)		
	(二)		9장
8장			
9장	(一)		
	(二)		
	(三)		
	(四)	覺書와 동일한 내용	10장
10장	(一)		11장
	(二)	覺書와 동일한 내용	12장
11장			
12장			
13장			(13장)

## V. 맺음말

본 논문은 「長恨夢」과 「金色夜叉」와 「終篇金色夜叉」, 그리고 腹案覺書 및 신파극의 각본인 「脚本金色夜叉」를 대조함으로써 「長恨夢」의 변안 형태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했다.

대조 작업을 통해서 「長恨夢」은 상권에서 하권에 이르기까지 「金色夜叉」와 「終篇金色夜叉」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작품임이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원작에 없는 「長恨夢」의 줄거리는 중권에서 형성되었고 이어지는 후반부는 그것을 이어받아 결실을 맺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하권에서 원작에 없는 내용을 부여해 내용이 폭이 넓혀졌다는 종래의 평가를 수정해야 함을 제시했다.

여기서 「長恨夢」 상권·중권·하권의 각 변안 형태의 특징과 변안 작업에 따른 주제 변천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역, -창작]	↕	↓	↓	원작과 동일한 줄거리와 주제를 수용(사랑이나, 돈이나)
[+변역,+ 창작]	↑	↕	↕	줄거리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주제의 형성(정조 의식)
[-변역,- 창작]	-	↓	-	"정조"의식의 강조(투신자살 사건)
[-변역,+ 창작]	-	↑	-	"정조"의식의 강조(정조를 지키려는 태도)

(↕ : 대단히 많음. ↑ : 많음, ↓ : 적음, - : 아주 적거나 없음)

이 결과에서 「金色夜叉」 및 「終篇金色夜叉」에서 찾아보지 못한 [-변역, +창작]의 변안 자질로 추가된 내용은 「長恨夢」 중권에서 심순애가 결혼한 후에도 남편과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은 것으로 자신이 배신한 이수일에 대한 사랑의 의리를 회복하려고 했으나 남편으로 인해

그 정조가 빼앗긴 내용이다. 같은 「長恨夢」 중권의 심순애가 한강대 교에서 투신자살을 하는 장면은 그 경위 및 구원을 받게 이르는 상황이 한국 고대소설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고, 「脚本金色夜叉」에도 미야의 자살을 시사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로 미뤄보아서 [-번역, -창조]의 변안 태도로 변안된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변안 소설 「長恨夢」은 심순애가 결혼한 후에도 정조를 시키는 것으로 잃어 버린 의로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했다는 새로운 줄거리를 중권에서 부여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원작과 다른 경로로 재결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변안 작가가 원작에서 탈피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고 모색한 핵심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長恨夢」은 다음과 같은 경로에 「脚本金色夜叉」나 한국 고대소설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변안되었다고 해야 한다.

腹案(覺書) ⇨ ( 「金色夜叉」 · 「終篇金色夜叉」 ) ⇨ 「長恨夢」

「長恨夢」의 은 내용이 원작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그 창조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長恨夢」의 창조성은 원작의 구조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든가 원작의 여러 내용을 채용하여 재조립한다든가의 특이한 변안 형태를 통해 당시의 한민족의 정서에 알맞은 작품성을 만들어내며 원작과 다른 시야를 독자에게 제기했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정조 의식을 부각시키는 「長恨夢」의 작품성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엿보인다. 원작은 작품 전체를 통해서 사회적·도덕적 제도를 중심으로 남녀가 잃어 버린 사랑의 '의'를 다시 세우는 것을 주된 주제로 삼고 있다. 「長恨夢」도 원작의 주제를 계승하면서도 정조를 지키지 못한 '고통, 슬픔'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長恨夢」의 이러한 주제는 한편으로는 일제 통치하에서 일본 문학을 통해서 선진국의 교양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복잡한 시대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長恨夢』의 번안 수법에는 원작을 그대로 수용하든가 원작의 일부분을 복잡하게 조립한다는 미숙한 기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거나 당시의 한민족의 정서에 잘 맞은 주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후세의 장편 소설 및 신문 문학의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는 문학적 공헌과 더불어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다.

### 참고 문헌

- 구인환(엮음)(1994), 『고교생이 알아야 할 고전』, 신원문화사.
- 金圭泰(編)(1991), 『韓國古典文學大系 小説集 1』, 明文堂.
- \_\_\_\_\_ (1991), 『韓國古典文學大系 小説集 3』, 明文堂.
- 나카가와 아키오(1998), “『長恨夢』과 『金色夜叉』의 직유 표현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논문.
- 尾崎紅葉·小栗風葉(1935), “金色夜叉終篇金色夜叉”, 『婦人俱樂部四月號附録』, 大日本雄辯會議談會.
- 尾崎紅葉集(1971), 『日本近代文學大系 5』, 角川書店.
- 小栗風葉(1912), 『脚本金色夜叉』, 春陽堂.
- 송명옥(1998), “『長恨夢』와 『再生』의 比較 研究”,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논문.
- 勝本清一郎(1941), “金色夜叉腹案覺書腹案覺書”, 『尾崎紅葉全集 6』, 中央公論社.
- 신근재(1995), “『金色夜叉』와 『長恨夢』에 反映된 社會意識”, 『韓日近代文學의 比較研究』, 一潮閣.
- 李在銑(1972), “開化期 翻案小説考-『金色夜叉』의 受容과 變容으로서의 『長恨夢』-”, 『韓國開化期小説研究』, 一潮閣.
- 趙一齊(1968), 『韓國新小説全集』第9集, 乙酉文化社.
- 趙重桓(1919), 『長恨夢』上卷(再版), 匯東書館.
- \_\_\_\_\_ (1921), 『長恨夢』中卷(三版), 朝鮮圖書株式會社,
- \_\_\_\_\_ (1923), 『長恨夢』下卷(六版), 朝鮮圖書株式會社,
- \_\_\_\_\_ (1935), “翻案回顧-『長恨夢』과 『雙千淚』”, 『三千里』9號.
- 최지순(1999), “『金色夜叉』와 『長恨夢』의 比較研究”,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논문.
- 최형미(1991), “『金色夜叉』와 『長恨夢』의 比較考察”,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논문.
- 한광수(1997), “韓國에 있어서의 尾崎紅葉의 『金色夜叉』의 수용에 관한 연구 ; 변모된 히로인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3, 韓國日本文化學會.